

2025년 3월

월간 KOCHAM



월간 KOCHAM 정보

발행처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KOCHAM)

발행인 유건영

편집인 KOCHAM 사무국

발행일 2025년 3월 25일

홈페이지 kochambr.com

이메일 info@kochambr.com

주소 Alameda Santos 700, Andar 8, Cerqueira Cesar, São Paulo, SP,
CEP: 01418-100

목차

1. 코참 활동

2.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상파울루 시청 방문

정기총회 개최 안내

골프대회 개최 안내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상파울루 시청 방문 (2/3)



유건영 코참 회장은 지난 2월 3일(월) 오후 4시 30분, 상파울루 시청을 방문하여 안젤라 마르틴스 상파울루 시 국제관계부 장관 및 실무진과 회의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최태훈 코참 고문, 우연호 대외협력분과위원장, 김수한 K컨텐츠분과위원장, 그리고 김수일 HSY Serviços 이사가 동행하였다.

코참과 상파울루 시는 상호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문화, 비즈니스, 사회 프로그램 협력,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젤라 장관은 상파울루 시청은 한국 기업을 돕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언제나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코참은 2월 15일(토)에 개최되는 “제 3회 설날행사”에 안젤라 장관을 초청하였고, 장관은 이를 수락하였다.



코참 활동

상파울루 시청 방문
정기총회 개최 안내
골프대회 개최 안내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정기총회 개최 안내 (4/9)



코참은 4월 9일(수) 오후 4시부터 모룸비에 위치한 우리은행 대회의실(Av. das Nações Unidas 14171, CJ 803, Torre C, São Paulo)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안건은 1) 2024년 자금집행 보고 및 승인, 2) 2024년 사업활동 보고 및 승인, 3) 2025년 사업 및 예산 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정족수 확인을 위해 참석 여부를 4월 2일(수)까지 코참 사무국에 통지가 필요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전달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은 3월 19일에 발송된 총회 개최 공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회 후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영사배 코참 친선골프대회 개최 안내 (4/26)



코참은 4월 26일(토) 오전 9시 30분, Itu 골프클럽에서 코참 회원사 및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총영사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에 Tee-off가 이뤄질 예정이며, 경기가 끝난 후에는 오찬을 겸한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4월 18일까지 소속, 이름, 직책, 핸디, 캐디 이용여부를 코참 사무국(info@kochambr.com)에 전달해야 합니다. 참가비는 일인당 R\$ 300이며, 클럽 소시오이거나 티켓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코참 활동

공관 및 교민 소식

‘Conexão Coreia’, 히오서 개최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개소
문화원, ‘한국의 빛’ 전시
aT, 한식 급식 도입 양해각서 체결
한타발, "제3회 설날 행사" 개최
한인회, 3·1절 기념식 개최

공관 및 교민 소식

히오서 열린 ‘Conexão Coreia’, 한류 열기로 뜨겁게 달구다



히오데자네이로에서 한국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Conexão Coreia’ 한국문화축제가 1월 19일(일) 현지 한류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열렸다.

축제는 히오데자네이로의 찌주까 테니스 클럽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다. 사회자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행사를 진행했고, 관객들은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 떡볶이, 김치 등을 시식하며 한국 요리의 매력을 만끽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아이돌 굿즈와 한국 제품을 판매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브라질한국무용협회(단장 이화영)의 현지인 단원들이 선보인 한국 전통춤 난타 공연은 큰 박수를 받았다. 화선무와 부채춤 등은 한국 전통 춤의 미와 우아함을 여실히 보여주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출처: 좋은아침)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라질 비즈니스센터 개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라질 비즈니스센터(센터장 김형민)가 1월 23일(목) 오후, 상파울루 시내 호텔 이벤트홀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콘텐츠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상파울루 현지 문화 업계 관계자 및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채진원 총영사, 김철홍 주브라질한국문화원장, 유건영 코참 회장, 정유선 aT상파울루지사장, 유성훈 한국콘텐츠진흥원 미주·유럽 수출지원팀 팀장, 리아라 올리베이라 SPCine 회장, 마르시아 클링 상파울루 예술문화연구소(ISPAC) 이사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5 상파울루 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으며, 향후 콘텐츠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출처: 좋은아침)

코참 활동

공관 및 교민 소식

‘Conexão Coreia’, 히오서 개최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개소
문화원, ‘한국의 빛’ 전시
aT, 한식 급식 도입 양해각서 체결
한타발, "제3회 설날 행사" 개최
한인회, 3·1절 기념식 개최

공관 및 교민 소식

문화원, 브라질리아에서 ‘한국의 빛 - 진주 실크등’ 전시



브라질리아 시민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빛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주브라질한국문화원(원장 김철홍)은 4월 24일까지 브라질리아 파치오 브라질 백화점에서 ‘한국의 빛 - 진주 실크등’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진주시의 후원과 산업, 상업 및 관광 발전 기금 FEICOTUR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언론인 아나 클라우디아 기마랑에스가 큐레이션을 맡았다.

전시장은 한국의 전통 축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1,200개의 실크 등불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조명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마련되는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출처: 좋은아침)

aT, 한식 급식 도입 양해각서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파울루지사(지사장 정유선)는 2월 6일 브라질 꾸리치바에 위치한 International School of Curitiba와 한식 급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으며, 꾸리치바 학생들에게 한식 문화 소개 및 확산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aT 상파울루지사는 한식이 브라질 학교 급식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레시피 개발, 조리사 교육, 현장 점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식 쿠킹클래스를 열어 학교에서 경험한 한식을 가정에서도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한인투데이)

코참 활동

공관 및 교민 소식

'Conexão Coreia', 히오서 개최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개소
문화원, '한국의 빛' 전시
aT, 한식 급식 도입 양해각서 체결
한타발, "제3회 설날 행사" 개최
한인회, 3·1절 기념식 개최

공관 및 교민 소식

한인타운발전회, "제3회 설날 행사" 개최



한인타운발전회(회장 고우석)가 올해로 세번째 주최한 "설날 행사(Festival de Ano Novo Lunar-Seollal)"가 2월 15일(토)과 16일(일) 양일간 Praça Coronel Fernando Prestes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한인타운발전회는 설날이 중국의 춘절(Ano Novo Chinês)이 아니라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Ano Novo Lunar)임을 브라질 현지인들에게 알리고자 2023년부터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5일에 진행된 오프닝 행사에는 채진원 총영사, 김범진 한인회장 등 한인 인사들 뿐만 아니라, 상파울루시 문화국장, 국제교류국장, 관광국장 등 브라질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출처: 뉴스훅)

한인회,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브라질 한인회(회장 김범진)는 3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 상파울루 소재 쇼핑 K-Square 루프탑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 사회의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독립유공자 후손 소개 등으로 차례를 이어갔다. 이어 심예원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채진원 총영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하며,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된 통합의 정신을 상징한다"며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출처: 한인투데이)